초기 조선 사회는 불교 사회였다

불교 믿는 조선왕실 및 제도 조명

한국사상사학회 161차 월례학술발표회서

문정왕후는 폐지되었던 선교양종을 다시 세우려 봉은사를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로 하였고 보우스님은 봉은사 주지가 된다.

조선 건국 이후 중기까지 불교가 조선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학계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사상사학회(학회장 김영미 · 이화여대 교수)가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한 제161차 월례학술발표회에서는 조선초기 불교정책에 대한 고찰이 이어졌다.

이날 '15세기 불교정책의 재검토'를 발표한 양혜원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조선전기 불교정책은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억불정책은 성리학적 이단 배척 일환이 아닌 당시 왕실의 숭불에 대한 조정 신료들의 반발이었다"며 "조선후기까지 왕실이나 민간의 숭불은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억불숭유는 당시 사회에서 앞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며 "조선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16세기 중앙에서 불교측 인사들의 위상이 약화되며 불교적 요소가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고 말했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박사는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불교사적 의의' 발표를 통해 "15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관료체제의 일부로 선교양종 승정체제가 유지됐다. 또 한시적 부역에 대한 대가로 승려 자격증인 도첩을 발급하는 등 불교정책을 현실적으로 운용했다"고 말했다.

15세기 선교양종 승정체제 유지

도첩 발급 등 현실적 운용

손 박사는 이어 "실록을 보면 중종 대에 이르러 왕실과 신료, 신료와 신료 간의 불교정책의 시행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양상이 보인다"며 "중종 초반 연산군 말기 붕괴된 선교양종 승정체제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1516년 기신제도 폐지되며 비로소 성리학적 왕정의 기틀이 다져진다"고 말했다.

특히 손 박사는 "하지만 중종대가 불교세가 가장 침체한 시기로 보는 시작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때 1,638개 이상의 사찰이 유지됐으며 민간에서는 승려 수가 증가하고 사찰판 불서 간행이 급증하는 등 불교세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명종대 선교양종 승정체제 복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된 것으로 승려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춘순 경희대 교수는 "중종 이후 문정왕후는 수륙재 등을 통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며 수렴청정을 하며 기본적으로 억불이던 정책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속적으로 추진된 숭불정책으로 불교가 저변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승과를 통해 걸출한 인물 휴정 · 유정 등이 배출됐다"며 "임진왜란에서의 이들의 활동은 다시 불교가 대중 저변에 확대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인도초기불탑 의미 다룬 첫 연구서

천득염 전남대 교수, 30년 연구성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인도 초기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다룬 연구서가 출간됐다.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을 아우르면서 초기 불탑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에 전래됐는지를 비교 탐구한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1〉를 펴냈다.

천득염 교수는 "한국에서 불교미술과 건축적인 분야에서 인도문화는 뗄수 없는 관계임에도 피상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며 "30여 년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답사 등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책에서 △다양한 종교의 나라 인도와 불교 △불탑(스투파)의 의미와 기원 △부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불탑 △인도 시원불탑의 의미와 형식 △인도 초기 불탑(스투파)형식의 변화 양상 △탑형 부조에 나타난 인도불탑의 변모 양상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인도불탑 조명 △인도 초기 불탑형식의 전래 등을 살폈다.

천 교수는 "향후 한국과 중국, 일본불탑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스리랑카, 네팔, 티베트, 미얀마 불탑에 대한 연구결과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득염 교수는 전남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시원불탑의 의미론적 고찰', 일본 교토대에서 '불탑의 동아시아 지역 전래'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는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술로는 〈한국의 명원 소쇄원〉, 〈전탑〉, 〈백제계석탑 연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광주건축사〉,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문화〉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반구대암각화 숨은 11점 발견…총 307점

울산 암각화 박물관, 도록 조사 유적조사 과정에서

울산시 울주군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서 숨은 그림 1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그림들은 울산암각화박물관(관장 이상목)이 지난해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도록'을 발간하기 위해 유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발견된 그림 가운데 고래 1점, 육지동물 3점, 인물상 2점 등 6점은 형상이 뚜렷하고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또 6점은 반구대 암각화의 주암면에서 왼쪽으로 1.2m 떨어진 바위면에서, 나머지 5점은 주암면의 그림 사이에서 각각 발견됐다.

이로써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은 지난 2000년 울산대 발물관이 조사했을 당시 296점에서 307점으로 늘어났다.

신주원 학예사는 "3D 스캔, 사진, 탁본 등 모든 재료를 동원해 조사했더니 그림 11점이 더 발견됐다"고 말했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반구대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신석기시대로 추정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비롯하여 대다수 자료에는 반구대암각화를 신석기 말~청동기 초기, 또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70년 울산지역 불교 유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원효 대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반고사지를 찾기 위해 반구대 마을을 방문하면서 밝혀졌다. 천전리 각석을 발견한 이후 1971년 조사단이 재차 파견됐으며 댐 상류지역 바위면을 조사하던 중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됐다. 이후 전국에 걸쳐 암각화가 발견됐으며 현재 약 20여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학술 · 문화재소식

한의학연구소,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성식)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불교학술원 227호 강의실에서 '심신치유의 실천론적 접근을 위하여'를 주제로 '불교와 사상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식 동국대 분당병원 교수의 '사상의학에서 성정(性情)의 중절(中節)과 심리치료'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정서적 변화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 연구' △김근우 동국대 분당병원 교수의 '고대 의안(醫案)에 나타난 불교사상연구' △김병수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의 '명상과 뇌과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등 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여불교' 콜로키움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연구소(소장 김종명)는 4월 24일 오후 3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세미나실에서 제6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박포리 애리조나대 교수가 'Engaged Buddhism in Contemporary Korea(현대 한국의 참여불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재가불교계의 참여운동을 검토한다. 박 교수는 특히 정토회와 인드라망의 풀뿌리 운동 등 사회참여와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 즉 자본주의를 넘어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상생, 공생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 논한다. (031)709-8327

노덕현 기자

5월 1일 조계종 율장연구회, '삼귀의·오계' 세미나

신행의 근본이 되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계단위원회 산하 계율연구모임인 율장연구회(회장 철우)는 오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주제로 제2회 계율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삼귀오계의 국제적 확산을 바라며' 주제의 발제를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경성 스님이 '삼보의 정의와 삼귀의계'를, 전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대우 스님이 '삼귀의계의 제정과 그 정착 과정'을,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의 역사 및 역할'을,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은 '오계와 윤리도덕'을, 계단위원 지운 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오계의 재해석'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장 대회 스님, 전 동학사 승가대학장 법성 스님,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교수사 병천 스님,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신성현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신중일 기자

5월 7일 한국정토학회 '보살사상과 복지'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현보살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보현보살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습합',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현행원품에 입각한 의례실행 방법 연구', 황옥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보현사상과 아동복지', 한국정토학회 성운 스님의 '한국불교와 사회복지'가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제38집 발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희)은 최근 〈불교연구〉 제38집을 발간했다. 〈불교연구〉 제38집에는 △부파분열과 파승(권오민) △종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김성철) △'섭대승론'에서의 '이문(異門)' 개념의 사상적 의미(여연 스님) △원효의 계율관(최유진)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의 공간 구성 검토(최연식) △고려시대 수륙재의 전개와 국행수륙재 설행의 의미(강호선) △고려후기 백련사 결사의 계승과 전개(황인규) △고려후기 '법화경 계환해'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박광연) △사효의 윤리와 출가정신의 딜레마(김호성) △초기 중국불교사에서 '법화경' 연구와 법화신앙의 형태(최은영) △중국근대 정토법문의 부흥과 인꽝(印光)의 정토사상(김영진) △현행 한국예불의 문제점과 방향(김종명) 등 논문이 수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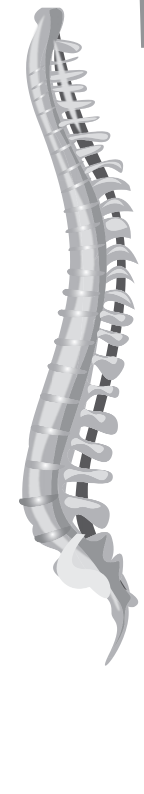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